

여고생들의 衣服行動과 性格特性과의 相關研究

朴 光 姬 · 姜 蕙 遠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衣生活學科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Behavior and Personality Traits among High School Girls

Kwang Hee Park and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1983. 9.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and three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traits were measured with Chung's Personality Scale. The questionnaire measuring clothing behavior consisted of items designed to assess clothing conformity, importance, and self-concept regarding clothing. This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items designed for this study in addition to items selected from questionnaires of such researchers as Sin, Lee, Chung, creekmore, Cheek, and Kim.

Thes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23 high school girls in Seoul. Statistical analysis consisted of correlation and t-test.

The results were:

- 1) Domin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concept regarding clothing and negatively related to clothing conformity.
- 2) Emotional stabil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modesty.
- 3) Sociabil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self-concept regarding clothing.
-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lothing behavior between early adolescents and late adolescents.

I. 緒 論

의복이란 인간에게 친밀한 일부분으로 자 개인의 心理的 欲求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의복은 그 시대의 社會, 宗教, 政治, 經濟상황을 반영시키는 동시에 한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역할, 신분 및 성격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Hillestad¹⁾은 의복을 개인과 그룹간의 무언의 전달 수단으로서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Ryan²⁾은 인간이 자신의 衣服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의 身體的 조건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격과 의복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성격과 身體特徵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合理的이라고 하였다.

의복은 어느 시기보다 청소년기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청소년, 소녀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에

동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친구들과간에 인기가 있고 없고는 의복에 따라 좌우되므로 衣服의 同調性 및 重要性은 청소년기에 큰 의미를 가지며 의복에 대한 自己評價에 따라 그들은 기분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³⁾.

한편, 청소년기는 17세를 中心으로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볼 때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시절은 청소년 前期와 後期가 統合된 時期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① 여고생들의 性格特性和 衣服行動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② 學年間的 의복행동을 비교하며 ③ 의복행동의 세측면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여고생들의 의복행동의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기의 의복행동연구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文獻의 背景

본 연구와 관련되는 文獻을 몇 측면에서 要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過渡期이며, 연령으로 볼 때 청소년 전기는 13세에서 16세까지, 후기는 17세에서 21세까지이다⁵⁾.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시절은 청소년 前期인 1학년과 청소년 後期인 3학년이 함께 존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김명훈⁶⁾에 의하면 청소년 前期는 단순히 신체적 성장만이 이루어지나, 後期는 신체적·지적·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기간은 가정·사회·경제·문화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⁶⁾.

성격측면에 있어서 청소년 前期의 소년 소녀들은 그들의 性格特性的의 바람직한 점,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認知하게 되며 그들자신의 性格特성을 친구들의 비슷한 성격특성에 입각해서 평가하게 된다. 반면, 어린시절에 형성된 性格들이 靑少年 初期에 약간의 변화를 거쳐 靑少年 後期에는 안정되므로 나이에 따라 약간 변화하지만 性格 자체보다는 그 성격의 強·弱이 변화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성격특성은 強化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특성은 弱化되는 것이다⁷⁾.

청소년기는 자신의 신체 및 용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 시기에 나타나는 불안의 원인중에서 主要한 것은 신체적 결함이 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있어서 의복은 자신의 外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同年輩 集團과 同一時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性格特性: 성격(personality)이란 Allport⁸⁾는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精神 物理的 組織으로서의 個人內的 力動的 體制라고 정의하였으며, Cattell⁹⁾은 어떠한 부여된 상황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行動을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예상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이란 Allport는 實在하는 心理的 構造로서 성격을 구성하는 實在的 단위로 하고하였으며, 이러한 성격특성은 비교적 恒常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特性中에는 그때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특성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통해서 비교적 一貫되어 나타나는 일정한 行動傾向이 있는데 이와같은 행동경향 및 그 집합을 特性이라고 한다¹⁰⁾.

Cattell은 인간의 성격을 묘사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요인분석에 의하여 16개의 성격특성으로 묶었다¹⁰⁾.

한편, 정범모는 성격을 8개의 성격특성으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活動性, 支配性, 安定性, 衝動性, 男向性, 客觀性, 思慮性, 社會性 등이다¹¹⁾.

이러한 性格特性理論은 한 특성이 나타내는 연속적 등급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다른 위치를 차지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한 개인을 支配性, 安定性 및 社會性등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격특성은 한 개인을 他人과 비교적 지속적인 방법으로 구별하게 하는 어떤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²⁾.

衣服에 대한 自己評價: Ryan²⁾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집단의 평가, 집단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자신의 평가, 집단의 평가, 집단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거의 일치되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보통 집단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Silverman 및 Ryan의 연구에서 靑少年 後期の 소녀들은 자신의 의복에 대한 평가를 평균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였다. Ryan은 성격특성과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支配性이 높은 학생이 자신의 의복을 높이 평가하였고 또한, 자신의 의복을 높이 평가한 학생은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대하여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²⁾.

衣服의 同調性: 신옥순¹³⁾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성이 낮을수록 외모상의 동조성이 높게 나타나며 獨立性 및 自己主張이 높을수록 외모상의 個性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Darden¹⁴⁾의 성격과 의복행동과의 연구결과

론 보면 社會性은 의복의 동조성과 관계가 있었으며, 지배성 및 정서적 안정성은 의복의 個性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ken에 의하면, 의복의 동조성이 높을수록 社交的이며 服從的이라고 하였다²⁾. Horn¹⁵⁾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동조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하며 연령층으로는 靑少年 前期가 그 절정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個性적으로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社會나 집단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서적 안정성이 높아야 하며 개인적 확신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Taylor와 Compton¹⁶⁾에 의하면 의복의 동조성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높은 사회성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衣服의 重要性: 첫 인상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첫 인상을 형성하는데 의복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복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된다. 이에 대해 Verner는 청소년 소녀들이 청소년 초기에 이미 사회생활에서 의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Silverman은 청소년들이 직업을 얻거나 클럽회원으로서 인정받거나 결혼의 기회를 얻는데 의복과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²⁾.

의복을 중요시하는 이유로써 소년들은 “외모에 의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소녀들은 “타인으로부터 호의적인 행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의복이 집단에 의한 승인을 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 반면, 대학생들은 “의복이 자아에 대한 확신과 잘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복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²⁾.

Ⅲ. 假 說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性格特性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假說을 설정하였다.

1) 여고생들의 성격특성은 의복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a. 性格特性中 支配性은 의복에 대한 自己評價 및 의복의 同調性과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b. 性格特性中 情緒的 安定性은 의복의 同調性과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c. 性格特性中 社會性은 의복의 重要性 및 의복의 同調性과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2) 學年間의 衣服行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Ⅳ. 方法 및 節次

1. 測定道具

1) 衣服行動 檢査

衣服에 대한 自己評價, 衣服의 同調性 衣服의 重要性의 세 측면을 측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衣服에 대한 自己評價: 자기 자신의 衣服着用狀態, 衣服着用方法에 대한 自己 스스로의 評價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옥순 및 이영운¹⁷⁾의 설문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선택 사용하였으며 그의 문항은 본 研究者가 작성하였다.

② 衣服의 同調性: 집단에서 承認받기 위하여 소속된 집단의 衣服規範에 준하여 衣服을 着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미실¹⁸⁾ 및 Creekmore¹⁹⁾의 설문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선택 사용하였다.

③ 衣服의 重要性: 衣服에 관심을 두며 衣服을 통해서 자신을 더 좋게 보일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Cheek²⁰⁾ 및 정미실의 설문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을 선택 사용하였다. 이상의 총 30문항은 무작위로 혼합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衣服에 대해 높게 評價하며, 衣服에 同調를 많이 하고, 衣服을 重要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性格特性 檢査

정법모의 표준화된 학생용 「일반성격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성격검사는 총 8개의 特性에 대한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衣服行動변인들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3特性 즉 支配性, 情緒的 安定性, 社會性의 총 90문항을 선택 사용하였다.

3) 衣服現況 檢査

衣服現況은 衣服項目別 着用頻度, 친구의 옷에 대한 評價, 衣服購買 場所 및 衣服의 管理性 등을 알아보는 것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2. 標準對象 및 資料蒐集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및 3학년 여학생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당 1학년과 3학년을 각기 1학급씩 선정하였다. 표집대상은 1학년 163명(51%)과 3학년 160명(49%)으로 총 323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說問紙에 의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1982년 11월에 배부하여 조사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60부 가운데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23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3. 研究의 限界點

본 연구의 한계점은 지역간 및 학년간의 표집이 표집이론에 맞추어 표집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의복행동 측정도구가 우리나라에서 실증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V. 結果 및 解釋

1. 性格特性和 衣服行動과의 관계

變因들의 分布傾向을 보면 衣服變因 각각의 총점수 범위는 10~50점이나 실제 점수 범위는 衣服에 대한 自己評價 15~50점, 同調性 10~40점, 重要性 21~48점이었다. 衣服에 대한 自己評價는 전체의 61%, 重要性는 전체의 89%가 31점이상에 분포되어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同調性은 전체의 81%가 30점이하에 분포되어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性格變因 각각의 총점수 범위는 0~30점이나 실제점수 범위는 支配性 0~28점, 情緒的 安定性 0~29점, 社會性 2~29점으로 나타났다. 支配性 및 情緒的 安定性은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社會性은 매우 높은 점수에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性格特性和 衣服行動과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n=323		
독립변인	의복변인	지배성 r	정서적 안정성 r	사회성 r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23***	.02	.19***
의복의 동조성		-.20***	-.03	-.04
의복의 중요성		.09	-.10	.06

*** p < .001

첫째로, 支配性은 의복에 대한 自己評價와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복의 同調性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支配性이 높은 사람이 의복에 대한 自己評價는 높으나 의복의 同調性은 낮은 것으로

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Ryan, 여성을 대상으로 한 Darden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옥순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支配性이 높은 사람은 집단에서 지도적이고 支配的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복에 있어서 他人과 다른 좀 더 個性的인 의복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의복에 대한 自己評價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정서적 안정성은 의복의 同調性과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의복의 동조성을 중요시한다는 Darden¹⁴⁾, 신옥순¹³⁾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Aiken²⁾의 연구결과와 相反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의복의 동조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또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적 안정성 문항내용이 다른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의복의 동조성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미실 및 김병미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로, 社會性은 의복의 동조성 및 의복의 중요성과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 이것은 사회성이 높을수록 의복을 중요시하거나 타인의 의복에 동조하게 된다는 Darden, Aiken 및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Taylor와 Compton의 연구결과와 相反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 점수와 의복의 중요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여고생들의 대다수가 의복을 중요시 여기며 또한 사회성 자체를 바람직하다고 지각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고생들의 상당수가 대학진학을 위해서 학업에 열중해야 하므로 사회적 모임에 참가할 기회가 적고 이러한 사회적 모임에는 대부분 교복을 착용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가설이외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社會性은 의복에 대한 自己評價와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복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學年間的 衣服行動의 차이

학년간의 의복행동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등학교시절이 발달단계로서는 청소년 전기와 후기가 함께 존재하는 시기이나, 고등학교 1학년 및 3학년이 전·후기에 따른 異質的인 集團이기보다는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同質的인 集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고생들이 고등

〈표 2〉 학년간의 의복행동 점수의 t검증결과

변인	1학년 (n=163)		3학년 (n=160)		T-value	
	M.S.D					
	M.	S.D	M.	S.D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32.28	5.52	31.94	4.47	.61	N.S.
의복의 동조성	26.42	5.53	26.28	4.78	.24	N.S.
의복의 중요성	36.44	5.29	36.13	4.66	.57	N.S.

학교시절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校服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私服을 자신이 선택할 기회 및 착용시간도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衣服變因 相互間的 關係

의복행동 변인사이의 상호관계는 〈표 3〉과 같다. 의복에 대한 自己評價는 同調性과 의미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重要性과는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신의 의복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의복을 중요시하나, 의복의 同調性에는 관심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여고생들은 의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의복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또한 타인의 의복과는 색다른 의복을 착용하므로써 자신의 의복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4. 衣服現況

의복항목별 着用頻度를 〈표 4〉에서 보면, T셔츠는 응답자 모두가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바지, 디스크바지, 주름있는 치마 그리고 남방셔츠

〈표 3〉 의복 변인 상호간의 상관관계

n=323

의복 변인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r	의복의 동조성 r
의복의 동조성	-.25***	
의복의 중요성	.17**	.08

** p<.05

*** p<.001

모양의 블라우스 등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90%이상이 치마바지를, 70%이상이 무릎길이의 바지를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조사당시(1982년 겨울)에 치마바지와 무릎길이의 바지가 유행의 초기에 있었으므로 여고생들은 유행 초기의 의복들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친구의 옷에 대한 평가를 〈표 5〉에서 보면 T셔츠와 바지, 블라우스와 치마, 잠바와 바지 및 자켓과 바지를 서로 맞추어 입었을 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으며 조끼와 치마, 조끼와 바지 및 원피스는 일반적으로 어울린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4〉 의복항목별 착용빈도

n=323

의복항목	착용빈도	전혀 안입는다	안입는다	가끔 입는다	주로 입는다	항상 입는다
상의	T-셔츠	0%	2%	15%	42%	41%
	남방셔츠모양 블라우스	1	7	27	50	15
	레이스·주름장식 있는 블라우스	10	26	48	14	2
하	바지 : 일자바지	5	12	33	39	11
	디스크바지	11	12	36	32	9
	꼭끼는 바지	17	24	34	19	6
	무릎길이의 바지	37	36	20	6	1
의	차마 : 주름있는 치마	7	15	46	28	4
	A-라인스커트	9	27	41	19	4
	티어트 스커트	32	25	35	6	2
	앞 또는 뒤를 튼 타이 트스커트	38	27	29	5	1
	치마바지	64	27	6	1	2

〈표 5〉 친구의 옷에 대한 평가

n=323

응답범위 항 목	아주 보기싫다	보기싫다	그저 그렇다	보기좋다	아주 보기좋다
티셔츠와 바지	0%	2%	20%	59%	19%
블라우스와 치마	1	5	20	52	22
티셔츠와 치마	3	16	61	18	2
블라우스와 바지	7	34	47	11	1
잠바와 바지	1	4	25	52	18
자켓과 바지	0	6	25	55	14
자켓과 치마	2	15	38	36	9
잠바와 치마	11	35	39	13	2
조끼와 치마	1	7	24	48	20
조끼와 바지	4	19	40	30	7
원피스	4	11	37	33	15

치마보다는 바지와 같은 활동적이며 보편화된 의복을 더 많이 착용하며 더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것은 요사이 대학 캠퍼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니섹스(Unisex)의복착용과 비슷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의복구매 장소를 보면, 의복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장소가 시장이었으며 그 다음이 양품점, 보세집, 유명기성메이커, 백화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고생들이 비싼 의복보다는 값싼 의복을 구입하는 것이며, 또한 교복이 있으므로 사복은 덜 중요시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의복의 管理性(세탁, 다림질, 옷수선)은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교복, 속내의 양말 및 손수건 등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나, 청바지 및 진바지는 세탁 및 다림질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탁보다는 다림질을 더 많이 자신이 하며 옷수선에 있어서는 짧은 시간 내에 바느질할 수 있는 것들은 자신이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들이 의복을 단정하게 입으려고 자신이 관리면에서 노력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Ⅵ. 結 論

첫째, 지배성은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동의복의 동조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사회성은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의복행동 변인의 상호관계에서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는 의복의 중요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의복의 동조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여고생들의 의복행동은 학년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참 고 문 헌

- 1) Hillestad, R.C., A Schematic Approach to a Theoretical Analysis of Dress as Nonverbal Commun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74)
- 2)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88, 91, 281~300, (1966)
- 3) Kefga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ian Publishing Co., 168~169, (1976)
- 4) Hurlock, E.B.,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391~392, (1968)
- 5) 김명훈, 심리학, 서울: 박영사, 77~88, (1977)
- 6) Blair, G.M., 青年心理學, 김인식譯, 서울: 배영사, 11, (1982)
- 7) Hurlock, E.B., Adolescence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424~444, (1973)
- 8) Allport, G.W.,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28, (1961)

- 9) Cattell, R.B., *Personality, A Systematic Theoretical and Factual Study*, New York: McGraw-Hill, 327, (1950)
- 10) Hjelle, L.A. and Ziegler, D.J., *Personality Theories*.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287~291, (1981)
- 11) 정범모, 인성검사, 서울: 코리안 테스트센터
- 12) Hilgard, E.R., Atkinson, R. and Atkinson, R.C., *Introduction to Psychology* (7th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382, (1979)
- 13) 신옥순, 자아정체감과 외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 심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14) Darden, L.A., *Personality Correlates of Clothing Interest for a Group of Non-incarcerated and Incarcerated Women Ages 18 to 30*,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 of North Carolina, (1975)
- 15) Horn, M.J., *The Second Skin*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46~175, (1975)
- 16) Taylor, L.C. and Compton, N.H., *Personality Correlates of Dress Conformity*. *J. of Home Economics*, 60, 653~656, (1968)
- 17) 이영운,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18) 정미실,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 향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19) Creekmore, A.M.,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erving for basic Nee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
- 20) Cheek, W.K., *Clothing Deprivation, Clothing Importance, and Self-Concept of Low Socioeconomic Forth Grade Students Enrolled in Two Types of Schoo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3)